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금년 성탄절은 저에게는 서글프고 힘들고 기운이 빠진 명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편지에 말씀드린 마멜로디 (Mamelodi) 지역 전도훈련(LTC)은 흥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나사로는 그렇게 철저히 약속해 놓고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교회에 광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심장내과에서 몇 년 전에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하나 시술을 했는데 특별한 임상 증상은 없었으나 경과를 알고 싶어 10월 13일 어렵게 예약을 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일 당장 입원하라는 담당의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운동 부하시험에서도 초음파에서도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나와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마멜로디 (Mamelodi) 전도훈련 일정이 잡혀 있고 (10월 20일-24일) 항공권도 저렴한 것으로 예약 발권을 했기에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어 14일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 목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교재 준비 등등 필요해서 몇 명이나 등록 했느냐고 전할 했더니 20여명 올 거라며 관심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전도훈련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꼭 차 있던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일 주일 제가 마멜로디 교회에 가서 개인전도 훈련 (LTC) 설명회를 하겠다고 허락하겠느냐고 하니 좋다고 하며 자기는 그 날 다른 행사가 있어 교회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나사로 목사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와 괴로웠습니다.

마멜로디 (Mamelodi) 교회는 제가 사는 곳에서 약 70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운전하여 도착하니 예배가 거의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약 30여분 동안 설명을 하자 교인들은 벽찬 기대감을 가지고 모두 훈련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흑인들이 일터에서 일하면 오후 4시 30분 또는 5시에 마치는데 집에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교통체증 때문에 1-2시간 정도 걸려 주중에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도 훈련 (LTC) 설명을 하러 갔는데 담임목사가 없으니 줄지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찬반 토론 후에 주말에 집중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 했기에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고 그들도 모두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전도훈련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나사로 목사가 직접 제집으로 찾아와서 왜 훈련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하며 내일 당장 오라는 식이었습니다. 교인들과 의논해서 주말에 하기로 약속한 내용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다음날 (11월 3일-7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부터 전도 훈련을 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전체가 참여하면 200여명이 되는데 그 교회에서 승용차가 있거나 카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모두 16명 모였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1시간 늦은 7시가 되어도 다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7시 30분에 시작하였고 저녁 9시 전에는 마쳐야 했습니다. 이 곳 흑인들 동네엔 9시면 한 밤중입니다. 저는 매일 140여 km를 운전해야 했고 2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바로 운전 하려하면 졸려서 목숨 걸고 다녀야 했습니다. 흑인지역을 야간에 운행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 (11월 7일) 1시간 30분 동안 배운 대로 전도 실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성령님은 그 현장에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12명이 실습에 참여 했는데 모두가 사영리 전도훈련의 의미와 참맛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자신 다른 이들이 잘하나 돌아보다가 현장의 필요에 빨려들어 젊은 대학생 5명을 만났고 짧았지만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대학에 CCC 사역이 없었고 그들은 목말라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6-38). 2천 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사실이었습니다.

개인 육성 (Follow Up) 이야기

폰초(Pontsho)와 아놀드(Arnold)에게 개인육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순모임을 인도해왔는데 개인 육성도 흥년이었습니다. 제자의 근본 특성이 충성스러움입니다. (딤후 2:2) 폰초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아놀드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모임에 빠집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이 있지만 들락날락거리는 정도입니다. 기대만큼 생각만큼 자라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 버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제 자신 심각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나?

12월 5일 토요일 금년 들어 마지막 순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스마트폰 2개를 강탈당하였습니다. 다른 한인들에 의하면 몸을 다치지 않은 게 그래도 다행이라며 위로를 해 주었으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회복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악몽과 충격으로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합니다. 주위에서 늘 들어 왔었지만 막상 제 자신이 당하고 보니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고후 11:26).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우들에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지치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번호가 거의 지워졌고 활발하게 소통했던 카톡도 지금은 거의 소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Jong-Shik Kim
P.O. Box 1835
Halfway House 1685
South Africa

이메일: jhbkim@daum.net / jhbkim@gmail.com

남아공 전화: 27(국가번호) 82-6789-146/ 71-545-9123

후원금 보내 주실 곳 : 국민은행 815-05-0012-987 김종식

새해에 더욱 평안하시고 강건하소서.

2015년 12월 20일

남아공에서 **김종식, 표복자** 올림